

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; 물,그늘 휴식

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℃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

1.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

폭염주의보: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폭염경보:최고기온이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

장시간 노출;열사병,열탈진,열실신,온열질환
초기증상;어지러움,발열,구토,근육경련

2. 폭염시 사업장 대처방안

1) 물, 그늘, 휴식!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

물

-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
-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.

그늘

-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
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
-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.
-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.
- 소음·낙하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

휴식

-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함

-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(33℃)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, 폭염경보(35℃)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.

-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림 (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)
-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 활용 휴식시간 조정
- 기상청 홈페이지(www.kma.go.kr)에서

날씨>생활환경>지수>열지수

●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2) 작업장 온·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

-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. 인터넷(www.kma.go.kr)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(날씨나라)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
- 온·습도는 작업 장소별,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

기상청 열지수 산출표 참조

3)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

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

-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, 힘없음, 어지러움, 두통, 빠른 심장박동, 구역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.

발생 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

-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.
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.
-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.
-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.
-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.
-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.

자료출처 ;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